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물류인

# 모범과 주변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옥선중 / 한국물류학회 회장

95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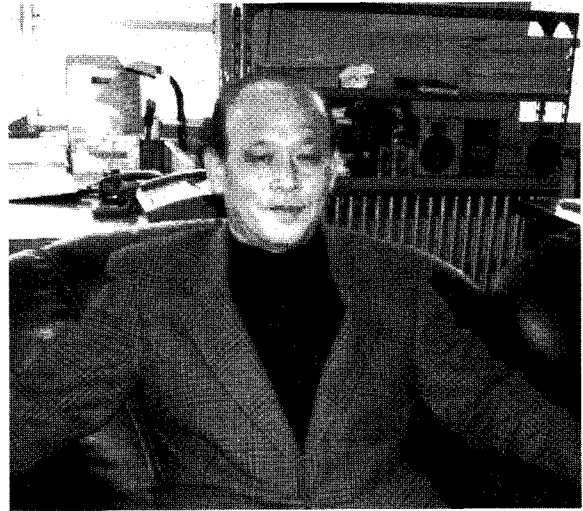
물류원년의 해로 삼자고 강조하는 한국물류학회 옥선중 회장은 '물류'의 학문적인 토대와 이론의 다양화를 위해 명지대학교에 유통대학원을 신설해 바쁜 준비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늘어만 가는 물동량에 대응할 만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부족과 물류기법이나 정보화를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시스템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의 동조체계가 되기까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장기적인 계획성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하드웨어(창고시설, 하역시설 등)나 소프트웨어(물류기법, 정보화 등)의 부족은 컴퓨터(물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게 느껴져 왔던 물류가 정부에서의 많은 관심과 업계나 연구단체에서 행했던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인식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다.

얼마전에 국회에서 화물유통 체제 개선과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 및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마련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과 기존 도심유통시설의 정비 및 재배치를 촉진하게 됨으로써 도심 교통체증 완화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이 통과됐고 업계에서의 제품을 팔레트 표준규격에 맞추려는 작업만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류수요와 교통량의 급속한 증대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 증가에 대해 옥선중 회장은 “물류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공동화, 물류표준화, 물류성력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Step by Step으로 진행되어야겠지요. 정부는 민간업체에서 대단위 단지조성을 위한 법의 개정과 세제지원을 하고 업계는 특정 상품부터 서서히 표준화를 하여야”한다며 “특히 법의 개정에서 모범과 주변법도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그에 상응한 여러가지 주변법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법이니 하는 것들도 동시에 고쳐져야 된다”고 말했다.



▲ 옥선중 회장

어느 해인가 외국에 다녀온 그는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부러워 했다. 도시외곽과 내부를 원활히 연결해 주는 유럽국가들의 교통시설과 공동집배송 중심의 도매센터를 광대하게 펼쳐 놓은 일본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 마인드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통대학원을 개설해 여지껏 보여졌던 주먹구구식의 교육을 벗어나 이론강의와 현장실습을 통해 물류전반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그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물류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식과 같은 후배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피력하는 옥선중 회장은 자신의 물류마인드에 만족하는 듯 인터뷰 도중 가끔 여유로운 웃음을 내보였다.

국가경쟁력강화와 물류학과를 태동시키기 위한 지적 작업을 계속할 태세를 흔들림없이 견지한 체로. [K]

변준섭 기자